

- 주요 뉴스: 미국 3월 FOMC 개최 예정 0.25%p 인상에 무게, 파월 의장 화견에도 관심
 - UBS, Credit Suisse 인수 합의. 당국은 원활한 합의 이행 위해 유동성 공급 가능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SVB 매각 시도를 재추진 필요 시 분할 매각 고려
 - 연준과 5개 주요 중앙은행, 미국 달러화 유동성 공급 강화에 합의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과 은행권 불안 등이 영향

주가 상승[+1.4%], 달러화 약세[-0.8%], 금리 하락[-2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당국의 은행권 지원에 따른 관련 우려 완화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은행주 중심으로 매도 급증하며 3.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폭 축소 예상, 유로화 강세 등이 배경
유로화 엔화 가치는 각각 0.3%, 2.4%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전망 등이 주요 원인
독일은 은행권 불안에 따른 영향 등으로 40bp 급락

※ 원/달러 환율(주간) 1.7% 하락, 한국 CDS 보합

		3/17일	3/10일	전주말대비			3/17일	3/10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16.6	3,861.6	1.43%	국채 금리 10y	미국	3.43%	3.70%	-27bp
	유럽	436.31	453.76	-3.85%		독일	2.11%	2.51%	-40bp
	중국	3,250.5	3,230.1	0.63%		영국	3.28%	3.64%	-36bp
	일본	27,334	28,144	-2.88%	CDS 5y	한국	43bp	43bp	0bp
	한국	2,395.7	2,394.6	0.05%		중국	77bp	74bp	3bp
환율	달러지수	103.71	104.58	-0.83%	위험 지표	EMBI+	433	409	24bp
	유로화	1.0670	1.0643	0.25%		VIX	25.51	24.80	2.86%
	엔화	131.85	135.03	2.41%		WTI유	66.74	76.68	-12.96%
	위안화	6.8867	6.9172	0.44%	원자재	구리	391.4	404.6	-3.26%
	원화	1,302.2	1,324.2	1.69%		금	1,989.3	1,868.3	6.4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3월 FOMC 개최 예정, 0.25%p 인상에 무게. 파월 의장 회견에도 관심

- 3/22일 FOMC가 열릴 예정이며, 연준은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금리인상 지속과 최근 은행권 우려로 인한 금리인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은행권 불안이 불거지기 전에는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0.50%p 인상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0.25%p 인상을 예상. 다만 일부에서는 금리동결을 기대
- 아울러 경제 및 금리전망과 파월 의장의 회견에도 관심. 특히 파월 의장은 은행권 불안 관련 연준의 대책이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밝힐 것으로 예상
- 최근 은행권 불안 등으로 시장 전망은 연준의 0.50%p 인상에서 금리인상 중단으로 급격히 이동.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다면 0.25%p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Bloomberg Economics의 Anna Wong)
- 한편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현재 4.50%~4.75%)는 3월에 0.25%p 올라 최종금리(4.75%~5.00%)에 이르고, 6월(4.50%~4.75%)에 0.25%p 인하 예상. 이후 7월(4.25%~4.50%), 9월(4.00%~4.25%), 12월(3.75%~4.00%)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 하락이 나타날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UBS, Credit Suisse 인수 합의. 당국은 원활한 합의 이행 위해 유동성 공급 가능

- UBS는 30억스위스프랑(32.5억달러, 주당 0.76스위스프랑)에 Credit Suisse(CS)를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최종 인수는 연말에 마무리될 전망. 스위스중앙은행은 특별한 상황에서 스위스 경제 보호 및 금융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았다고 발표. 또한 필요 시 합병된 은행에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
- 스위스 당국은 이번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미국, 영국 등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당국은 CS 채권 보유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EU 당국은 이에 대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SVB 매각 시도를 재추진. 필요 시 분할 매각 고려

- 관계자들에 따르면, FDIC는 3/19일까지 SVB 매각을 위한 입찰에 나섰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에 입찰 기간을 3/22일까지 연장. 또한 원활한 매각을 위해 SVB의 부문별 매각도 검토. 한편 시그니처 은행의 경우 New York Community Bancorp(NYCB)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발표
- 미국중소은행연합협회(MBCA)는 당국에 향후 2년 동안 모든 예금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 이를 통해 중소기업 예금에 대한 대규모 인출 사태 방지와 은행시스템 전체의 신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 연준과 5개 주요 중앙은행, 미국 달러화 유동성 공급 강화에 합의

- 연준은 5개 주요 중앙은행(ECB,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 빈도를 확대(7일물을 주1회→매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연준은 해당 내용을 3/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최소한 4월 말까지 지속할 계획

■ ECB 매파 인사,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금리인상 필요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매우 강하며 이에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한다고 언급. 또한 추가 금리인상의 폭과 횟수 등은 경제지표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발언
- 벨기에 중앙은행 분쉬 총재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 다만 세부 내용은 회의 때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

■ 독일 정부,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 추진. 중국산 원자재 의존 축소 등이 목적

- 솔츠 총리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 범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 특히 일본이 새로운 원자재 전략을 통해 어떻게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췄는지 배우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20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중국 인민은행 금리 결정, 독일 2월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점차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을 반영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Things are only getting harder for the Fed)

- 연준은 경기침체 우려에 직면하고 있으나 '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경제 여건이 달라 당시와 같이 명확한 통화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 첫째, '08년 경기침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고금리 유지가 필요
- 둘째, '08년 당시에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이 글로벌 수요를 지탱.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 둔화 및 탈세계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중국의 글로벌 역할은 기대안.
- 셋째,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적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
- 연준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당분간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점차 금리인상 중단 혹은 금리인하로 정책기조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

■ MMF 시장, 은행 불안에 따른 충격은 과거와 달리 제한적일 전망 - WSJ

(You Can Trust Your Money Fund Not to Fail This Time)

- 과거 은행시스템 위기 시 MMF에서 대규모 펀드런이 발생하곤 했으나, 이번에는 관련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MMF 투자자산의 60%가 리먼브라더스 등이 발행한 회사채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전체 67%의 MMF가 국채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MMF의 은행채 익스포저도 과거 대비 큰 폭 축소
- 또한 '08년에는 MMF가 6개월 내지 1년 잔존만기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후 운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2주에 그치는 등 유동성이 크게 개선

■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위험 증가를 대비할 필요 - Financial Times

(US Treasuries' rollercoaster ride strains bond market functioning)

- 최근 국채시장의 일일거래량이 1987년 이후 최대치 기록. 이는 SVB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 등에 기인. 국채시장은 '20년과 같은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높은 수준의 변동성 지속에 대한 주의가 요구
- 또한 국채시장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간 지속될 가능성. 이에 더해 국채거래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국채보유비용 증가 등으로 국채거래에 소극적. 반면 헤지펀드 등의 국채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는 레버리지 리스크 증가를 의미

■ 미국 중소기업의 대출여력 감소, 일부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우려 - WSJ

(Local Banks Could Leave Gaps That Are Hard to Fill)

-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당국 및 대형은행의 지원으로 중소형 은행의 예금인출은 감소세. 그러나 중소기업이 현금보유를 늘리면서 대출여력이 감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특히 소형은행들은 건축 및 토지개발 관련 대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에서 비중이 큰 편. 미국경제는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겠으나 중소기업 등 일부 경제주체에 대한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주요국 중앙은행, 투자자들의 은행시스템 신뢰 회복 노력이 요구 - Financial Times

(Global banking is now inside Schrödinger's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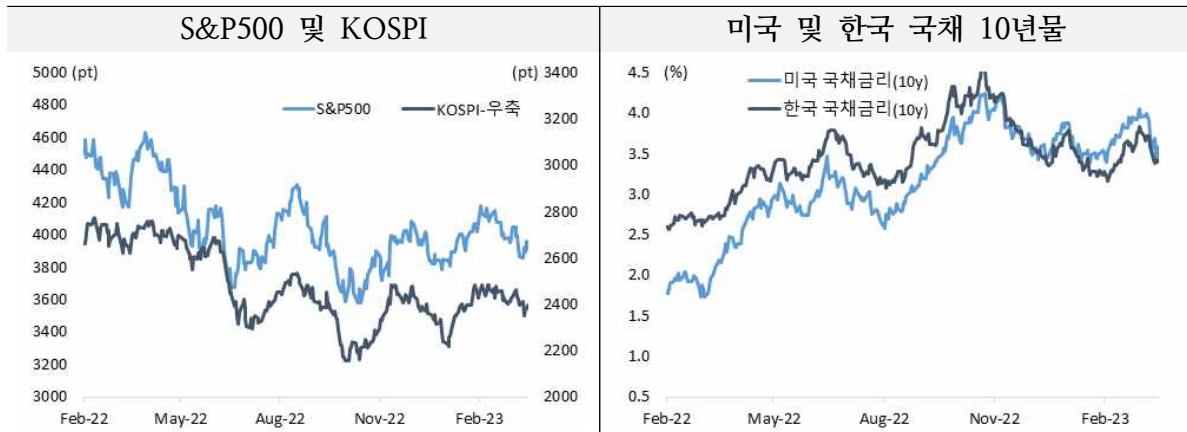
■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보조금 부족 등으로 역내 국가 간 경쟁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EU Sets Out New Green Plans as Biden Subsidies Raise the Stakes)

■ 인도 경제, 경제 성장을 상승 불구 실업률 증가 해결에 어려움 직면 - Financial Times

(India's Narendra Modi has a problem: high economic growth but few job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